1. 역사
   1. 1990년대 말: 오픈소스 계획의 기반  
       컴퓨팅 초기에는 프로그래머들과 개발자들이 서로 배우고 컴퓨팅 분야를 발전시키기 위해 소프트웨어를 공유했다. 결국, 오픈소스 개념은 1970~1980년에 소프트웨어의 상업화의 길로 옮겨갔다. 그러나 학자들은 여전히 협력적으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다. 예를 들어 1979년에 TeX typesetting system을 사용한 Donald Knuth 또는 1983년에 GNU 운영 체제를 사용한 Richard Stallman이 있다. 1997년 Eric Raymond는 해커 커뮤니티와 프리소프트웨어 원칙에 대한 성찰적 분석을 담은 《성당과 시장》를 출판했다. 이 논문은 1998년 초에 상당한 관심을 받았고, 넷스케이프 통신사가 그들의 인기 있는 넷스케이프 통신사 인터넷 스위트를 프리소프트웨어로 출시하도록 동기를 부여한 한 요인이었다. 이 소스 코드는 이후 SeaMonkey, Mozilla Firefox, Thunderbird, KompoZer의 기반이 되었다.

넷스케이프의 행동은 Raymond와 다른이들에게 프리소프트웨어 재단의 프리소프트웨어 아이디어와 인식된 이익을 상업 소프트웨어 산업에 어떻게 가져다 줄 것인가를 조사하도록 했다. 그들은 FSF의 사회적 활동주의가 넷스케이프 같은 회사들에게 매력적이지 않다고 결론짓고, 소프트웨어 소스 코드에 대한 공유와 협력의 사업 잠재력을 강조하기 위해 프리소프트웨어 운동의 브랜드를 바꾸는 방법을 모색했다. 그들이 선택한 새로운 용어는 Bruce Perens, 출판사 Tim O’Reilly, Linus Torvalds, 그리고 몇몇 사람들 등이 채택한 "오픈 소스"였다. 오픈소스 계획은 1998년 2월에 새로운 용어의 사용을 장려하고 오픈소스 원칙을 전파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오픈소스 계획이 새로운 용어의 사용을 장려하고 그것이 고수하는 원칙을 전도하려고 하는 동안, 상업용 소프트웨어 공급업체들은 그들이 애플리케이션의 소스 코드에 대한 자유로운 배포 소프트웨어와 보편적인 접근이라는 개념에 점점 더 위협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한 임원은 2001년에 “오픈소스는 지적재산권 파괴자라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소프트웨어 사업과 지적재산권 사업에 이보다 더 나쁠 수 있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프리소프트웨어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역사적으로 개인 소프트웨어 개발의 주류 밖에서 역할을 해 왔지만,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대기업들은 인터넷에서 공식적인 오픈소스 프레임을 개발하기 시작했다. IBM, Oracle, Google, State Farm은 오늘날 경쟁적인 오픈 소스 시장에서 심각한 공공 지분을 가지고 있는 몇몇 회사들 중 일부에 불과하다. FOSS 개발에 관한 기업 철학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

프리소프트웨어 운동은 1983년에 시작되었다. 1998년, 한 개인집단은 프리소프트웨어라는 용어를 덜 모호하고 기업 세계에 더 편안한 표현으로 OSS(Open-Source Software)로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누구나 동일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거나 내부 기능을 이해할 수 있도록 오픈소스 라이센스로 소프트웨어를 게시하고자 할 수 있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로, 일반적으로 누구나 그것의 수정을 만들고, 그것을 새로운 운영 체제와 명령 집합 구조에 이식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거나, 어떤 경우에는 그것을 판매할 수 있다. 학자인 Casson과 Ryan은 특히 오픈소스의 채택에 대한 몇 가지 정책 기반 이유를 다음과 같은 범주에서 지적했다.  
〮보안  
〮경제성  
〮투명성  
〮영원성  
〮상호운용성  
〮유연성  
〮국산화 - 특히 소프트웨어 의사결정을 하는 지방정부의 맥락에서의. Casson과 Ryan은 "정부는 납세자에 대한 고유한 책임과 수탁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여기에는 독점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거나 오픈소스 옵션을 시행하기로 결정할 때 이러한 요인에 대한 세심한 분석이 포함된다.

오픈소스 정의는 오픈소스 철학을 제시하며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사용, 수정 및 재분배 조건을 추가로 정의한다.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는 저작권법에 의해 저작권 소유자에게 소유될 수 있는 권리를 사용자에게 부여한다. 몇 개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는 오픈소스 정의의 범위 내에서 검증되었다. 가장 두드러지고 인기 있는 예는 GNU General Public License(GPL)로, "추가 개발 및 애플리케이션이 동일한 라이센스에 포함되는 조건 하에서 무료 배포를 허용한다"는 것이다.

오픈소스 라벨은 네스케이프가 1998년 1월 네비게이터(Mozilla)의 소스코드 방출을 발표한 것에 대응하여 1998년 4월 7일에 Palo Alto에서 개최된 전략 세션에서 나왔다.

세션에 참가한 개인 그룹은 Tim O'Reilly, Linus Torvalds, Tom Paquin, Jamie Zawinski, Larry Wall, Brian Behlendorf, Sameer Parekh, Eric Allman, Greg Olson, Paul Vixie, John Ousterhout, Guido van Rossum, Philip Zimmermann, John Gilmore and Eric S. Raymond들 이었다. 그들은 네비게이터의 소스 코드가 발표되기 전의 기회를 이용하여 영어에서 "자유"라는 단어의 모호성으로 인한 잠재적 혼란을 명확히 하였다.

많은 사람들은 1969년 이후 인터넷의 탄생이 오픈소스 운동을 시작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오픈소스 운동과 프리 소프트웨어 운동을 구분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985년에 시작된 프리소프트웨어 재단(FSF)은 "무료"라는 단어는 배포를 의미하지 않고, 비용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하지 않았다. 많은 프리소프트웨어가 이미 무료였기 때문에 그러한 프리소프트웨어는 반상업적인 것처럼 보이는 제로 코스트와 연관되게 되었다.

오픈소스 계획(OSI)은 1998년 2월 Eric Raymond와 Bruce Perens에 의해 결성되었다. OSI는 이미 인터넷 개발자 커뮤니티가 제공한 비공개 소프트웨어 개발의 사례와 공개 개발의 사례 이력에서 최소 20년의 증거를 확보하여 넷스케이프와 같은 상업적 기업에 "오픈 소스" 사례를 제시했다. OSI는 전략 세션에서 Foresight Institute의 Christine Peterson에 의해 제안된 용어인 "오픈 소스"라는 라벨을 사용하면 특히 "프리소프트웨어"를 반상업적인 것으로 인식하는 개인에 대한 모호성을 없앨 수 있기를 희망했다. 그들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소스 코드의 실질적인 이점에 대한 보다 높은 지평을 얻으려고 했고, 그들은 주요 소프트웨어 사업과 다른 첨단 기술 산업을 오픈소스로 끌어들이기를 원했다. Perens는 OSI의 서비스마크로서 "오픈 소스"를 등록하려고 시도했지만, 그 시도는 상표 표준으로는 실용적이지 않았다. 한편, Raymond의 논문이 Raymond사의 상급 경영진에게 발표되었기 때문에 넷스케이프 보도자료를 읽었을 때 비로소 발견되었고, 이후 넷스케이프 사의 최고경영자 Jim Barksdale의 PA가 호출하여, 넷스케이프는 네비게이터 소스 코드를 오픈 소스로 공개하여 호평을 받았다.

1. 정의

오픈소스 계획의 (OSI) 정의는 국제적으로 여러 정부들에 의해 표준 또는 사실상의 정의로 인정된다. 또한, Debian, Drupal 협회, FreeBSD Foundation, Linux Foundation, OpenSUSE Foundation, Mozilla Foundation, Wikimedia Foundation, Wordpress Foundation은 OSI Affiliate Agiliate Agreement를 포함한 세계 최대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프로젝트와 기여자들 중 다수가 있고,  
OSI의 사명 및 오픈소스 정의를 유지하기로 약속했다.

OSI는 오픈 소스 정의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오픈소스를 고려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한다. 그 정의는 주로 Perens에 의해 쓰여지고 각색된 Debian 프리소프트웨어 지침에 기초하였다. Perens는 후에 널리 보급할 수 있었던 프리소프트웨어재단(FSF)의 "4가지 자유"를 근거로 글을 쓰지 않았다.

Perens의 정의에 따르면 오픈소스는 코드 사용과 수정에 대한 느슨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제한으로 일반 대중이 소스 코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광범위한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다. 소프트웨어의 빠른 진화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어떤 조직이나 사용자에 의한 사용이나 배포에 거의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은 오픈 소스의 노골적인 "기능"이다.  
  
 FSF의 Richard Stallman은 처음에 그것을 받아들였지만, 이제 "오픈 소스"라는 용어가 그들이 "프리소프트웨어"라고 부르는 것에 단호히 반대했다. 비록 그는 두 용어가 "거의 동일한 카테고리 소프트웨어"를 기술한다는 것에 동의하지만, 그 용어를 부정확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Stallman은 또한 소프트웨어 자유에 대한 FSF의 이상주의적 기준을 절충함으로써 자유와 공동체의 프리소프트웨어 이상이 위협받을 것을 우려하여 오픈소스 계획의 공언된 실용주의에 반대한다. FSF는 프리소프트웨어를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부분 집합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예를 들어 DRM 소프트웨어는 사용자에게 자유를 주지 않음(제한됨)에도 불구하고 오픈소스로 개발할 수 있으며, 따라서 프리소프트웨어로서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다고 Richard Stallman은 설명했다.

* 1.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자격

작성자가 오픈소스 프로젝트에 코드를 기부하는 경우, 명시적 라이선스 또는 암묵적 라이센스에 따라 코드를 기증한다. 일부 오픈소스 프로젝트는 라이센스 하에 기증된 코드를 가져가지 않지만, 실제로 프로젝트에 코드 기여를 수용하기 위해 저작권의 공동 배정을 요구한다.  
  
 프리소프트웨어 라이센스/오픈소스 라이센스의 예로는 Apache License, BSD License, GNU General Public License, GNU Lesser General Public License, MIT License, Eclipse Public License, Mozilla Public License 등이 있다.  
  
 오픈소스 라이센스의 확산은 종종 라이센스 간의 차이의 법적 의미를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오픈소스 운동의 부정적인 측면이다. 18만 개 이상의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이용할 수 있고 1400개 이상의 고유 라이센스를 보유하고 있는 가운데, "폐쇄 소스" 상업 기업 내에서 오픈 소스 사용을 관리하는 방법을 결정하는 복잡성이 극적으로 증가하였다. 일부는 자생하는 반면, 다른 일부는 Berkeley Software Distribution("BSD"), Apache, MIT-style 또는 GNU General Public License(“GPL")와 같은 주 FOSS 라이센스를 본뜬 것이다. 이를 감안하여 오픈소스 실무자들은 FOSS 라이센스를 그룹화하는 분류 체계를 사용하기 시작하고 있다(일반적으로 카피레프트 조항에 의해 부과되는 존재와 의무, 카피레프트 조항의 강도에 기초한다).  
  
 오픈소스/프리소프트웨어 운동의 중요한 법적 이정표가 2008년에 통과되었는데, 미국 연방 항소 법원은 프리소프트웨어 라이센스가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의 사용에 대해 법적 구속력 있는 조건을 확실히 정하고, 따라서 기존 저작권법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그 결과 최종사용자가 라이센스 조건을 위반하면 라이센스가 없어져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러한 라이센스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상용 소프트웨어 공급업체는 Apache 라이센스를 활용하는 등 라이센스 조건을 이행하면서 상용 제품에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다.

* 1. 증명

인증은 사용자 신뢰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인증은 가장 단순한 구성 요소, 전체 소프트웨어 시스템에 적용될 수 있다. UN대학 국제 소프트웨어 기술 연구소는 "글로벌 데스크톱 프로젝트"라고 알려진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이 프로젝트는 모든 최종 사용자가 이해하고 상호 작용하여 언어와 문화적 장벽을 넘을 수 있는 데스크톱 인터페이스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프로젝트는 개발도상국의 정보 시스템 접근을 향상시킬 것이다. UNU/IIST는 인증을 도입하여 소프트웨어의 품질에 어떠한 타협도 없이 이를 달성하기를 희망하고 있다.